

WEBVTT

00:00:11.879 --> 00:00:15.099

이번 시간에는 에세이 쓰기,
수필 쓰기

00:00:15.124 --> 00:00:17.795

이런 부분에 대해서
한번 알아보려고요.

00:00:18.036 --> 00:00:21.693

에세이 쓰기는 여러분이 잘하면
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도

00:00:21.718 --> 00:00:25.518

굉장히 도움이 되니까
우리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.

00:00:26.255 --> 00:00:29.362

보통 에세이는 생각을
자유롭게 표현하는

00:00:29.387 --> 00:00:31.319

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.

00:00:32.649 --> 00:00:36.024

어떠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
쓰는 글 이런 걸 보통 수필

00:00:36.049 --> 00:00:37.909

혹은 에세이라고 얘기하거든요.

00:00:38.072 --> 00:00:41.649

에세이를 굳이 나누자면
경수필과 중수필이 있고요.

00:00:41.913 --> 00:00:45.713

경수필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
기록하는 거고

00:00:45.976 --> 00:00:47.472

중수필은 어떤 사회적인
이슈에 대해서

00:00:47.497 --> 00:00:54.647

내 견해를 밝히는 행위
이것도 중수필이라고 할 수 있어요.

00:00:55.188 --> 00:00:58.874

에세이 쓰기는 생각을
자유롭게 표현하는 건데요.

00:00:58.899 --> 00:01:02.854

그런데 생각을 자유롭게
표현하는 것 때문에

00:01:02.879 --> 00:01:05.285

글쓰기에 좀 문제가
생길 수도 있어요.

00:01:05.488 --> 00:01:09.288
예를 들면 아무거나 써 와라
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자고요.

00:01:09.313 --> 00:01:12.512
선생님이 주제를 내줬는데
너 아무거나에 대해서 써 와라.

00:01:12.656 --> 00:01:14.744
그러면 애들이 글쓰기가 어렵죠.

00:01:15.004 --> 00:01:18.134
아무거나라는 게 얼마나
애매모호한 표현입니까?

00:01:18.159 --> 00:01:18.792
그렇죠?

00:01:18.816 --> 00:01:23.345
그러니까 사실 글쓰기를 할 때는
주제를 잡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.

00:01:23.370 --> 00:01:28.239
그런데 주제를 가능한 좁혀 잡을수록
더 좋은 글이 나온다.

00:01:29.387 --> 00:01:32.247
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유롭게
토론해라,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.

00:01:32.272 --> 00:01:34.928
그런데 토론 주제를
좁히고 좁히고 좁혀 가면

00:01:34.953 --> 00:01:40.575
아이들에게 훨씬 더 얘기가
재미있게 나올 수 있는 거죠.

00:01:40.600 --> 00:01:42.033
추상적으로 흐르지 않고요.

00:01:42.156 --> 00:01:43.911
예를 들면 우리가
가을에 대해서 논하자.

00:01:43.936 --> 00:01:46.274
이건 너무 추상적인 주제잖아요.

00:01:46.299 --> 00:01:48.229
가을에 대해 써라,
여름에 대해 써라.

00:01:48.254 --> 00:01:49.181
안 되죠.

00:01:49.206 --> 00:01:52.852
여름날에 네가 물놀이 간
어떤 추억에 대해 써라.

00:01:52.877 --> 00:01:58.625
여름에 엄마하고 아빠하고

재미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해 써라.

00:01:58.650 --> 00:02:02.006

그런 명확한 주제를 줘야만,

00:02:02.031 --> 00:02:05.161

주제를 좁힐수록

좋은 에세이 소재가 될 수 있다,

00:02:05.186 --> 00:02:06.540

이렇게 얘기를 하고요.

00:02:06.565 --> 00:02:10.706

이 예는 우리가 100분 토론 같은

그런 시사 프로를 보면

00:02:10.731 --> 00:02:12.442

더 확실히 나타나요.

00:02:12.467 --> 00:02:16.083

거기에 보면 명확한 주제가

설정이 되잖아요.

00:02:16.108 --> 00:02:18.087

그래야 그걸 가지고 일정한 시간에

00:02:18.112 --> 00:02:21.738

효율적인 대책이나

이런 게 나오는 거지

00:02:21.763 --> 00:02:25.815

주제를 광범위하게 하면

중구난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요.

00:02:25.840 --> 00:02:28.405

그러니까 일단 에세이 쓰기에서

가장 중요한 것은

00:02:28.430 --> 00:02:31.431

소재를 명확히 하는 거고

소재를 좁히는 것이다.

00:02:31.456 --> 00:02:33.216

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

00:02:33.778 --> 00:02:36.545

주제를 좁히는 것이

또 왜 중요하냐 하면

00:02:36.570 --> 00:02:41.460

사실 여기에는 에세이 작문 쓰기의

문제점이 있기도 해요.

00:02:42.077 --> 00:02:45.230

에세이 작문 쓰기에서의 문제점은

00:02:45.255 --> 00:02:49.476

주제 자체에 대한 고민이

묻어 있어요.

00:02:49.501 --> 00:02:51.044

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

00:02:52.214 --> 00:02:55.486

우리가 어떠한 책을 읽고
서평을 쓰는 행위는

00:02:55.511 --> 00:02:57.748

그 책에 대해서 선생님도
읽어보니까 알 수 있어요.

00:02:57.773 --> 00:03:00.912

그런데 이 에세이나 작문 이런 것은

00:03:01.062 --> 00:03:04.283

결국은 개인적인 경험에서
우러나오는 것이잖아요.

00:03:04.308 --> 00:03:08.286

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적인 경험을
선생님이 모를 경우에는

00:03:08.311 --> 00:03:10.238

지도해 주기 어렵다는 거예요.

00:03:10.921 --> 00:03:16.021

여러분이 예를 들면 미국을
갔다 왔다고 해 보세요.

00:03:16.046 --> 00:03:20.119

미국 갔다 와서 글을 잘 쓰는
친구들은 써 내니까

00:03:20.144 --> 00:03:22.658

선생님이 조금만 수정을
해 주면 돼요.

00:03:22.683 --> 00:03:27.901

그런데 글을 짧게 썼거나
아니면 너무 두루뭉술하게 썼거나

00:03:27.926 --> 00:03:30.458

이렇게 글을 못 썼을 경우에

00:03:30.483 --> 00:03:32.800

선생님이 지도를 해 주기가
너무 어려워요.

00:03:32.825 --> 00:03:35.327

왜냐하면 선생님도 미국에
안 가봤으니까.

00:03:36.042 --> 00:03:37.963

그래서 이 에세이 쓰기를 잘하려면

00:03:37.988 --> 00:03:42.296

사실 선생님이 함께 경험을
공유하면서 해야

00:03:42.794 --> 00:03:45.528

지도를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

00:03:45.553 --> 00:03:52.326
그런데 바로 이 점 때문에 여러분이
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

00:03:52.351 --> 00:03:56.855
여러분에게 있는 경험을
털어놓지 않으면

00:03:56.880 --> 00:03:59.925
선생님이 지도를 해 줄 방법이
없다는 거예요.

00:04:00.285 --> 00:04:02.584
그러니까 이 에세이 쓰기는
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요.

00:04:02.609 --> 00:04:09.489
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만의
경험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해요.

00:04:10.052 --> 00:04:13.275
그런데 이 경험을 끌어내는 걸
어떻게 하나고요.

00:04:13.300 --> 00:04:18.819
어떻게 하나 하면 일단 여러분
기억 속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거.

00:04:18.844 --> 00:04:23.886
가장 슬펐던 일, 가장 기뻐던 일
또 가장 부끄러웠던 일

00:04:23.911 --> 00:04:26.768
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행위가

00:04:26.793 --> 00:04:29.546
에세이 쓰기에서는
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요.

00:04:29.571 --> 00:04:33.633
그러면 가장 인상적인 일을
어떻게 찾을 것인지.

00:04:33.658 --> 00:04:34.955
어떻게 찾을까요?

00:04:34.980 --> 00:04:41.331
일단 학생일 경우 우리가 쓸 때
내가 공부하고 놀고

00:04:41.356 --> 00:04:43.494
이런 경험들이 대부분이잖아요.

00:04:43.519 --> 00:04:45.240
그러니까 쓸 얘기가 마땅치 않아요.

00:04:45.265 --> 00:04:50.287
그런데 내가 내 경험을 자세히.

00:04:50.312 --> 00:04:54.117
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고

그 경험들이 다 내 안의

00:04:54.142 --> 00:04:55.694
어딘가에 잠재돼 있거든요.

00:04:55.719 --> 00:04:59.060
그래서 그 잠재된 그런 기억을
끄집어내야 하는데

00:04:59.085 --> 00:05:01.708
그러려면 우리가 처음에 했던 대로
마구 쓰기를 통해서

00:05:01.733 --> 00:05:05.538
그 얘기를 이렇게 드러내는
방법도 필요하고요.

00:05:05.906 --> 00:05:10.848
내가 겪은 어떤 그런 경험을
아까 얘기한 대로

00:05:10.873 --> 00:05:13.883
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해서
토해 내야 해요.

00:05:13.908 --> 00:05:17.534
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
너무 좋았던 일

00:05:17.559 --> 00:05:20.609
이런 것만 쓰는 게 아니라
너무 당혹했던 일도 할 수도 있고

00:05:20.634 --> 00:05:22.862
너무 슬펐던 일,
그다음에 우울했던 일.

00:05:22.887 --> 00:05:26.302
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
끄집어낼 수 있어야 하고요.

00:05:26.327 --> 00:05:29.000
이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재가

00:05:29.025 --> 00:05:33.829
나중에는 여러분이 고등학교나
대학교에 들어갈 때 쓰일

00:05:33.854 --> 00:05:37.654
자기소개서에도 굉장히
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어요.

00:05:37.679 --> 00:05:40.825
자기 경험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고

00:05:40.850 --> 00:05:44.069
그 경험을 끄집어내는 일은
본인의 몫이에요.

00:05:44.094 --> 00:05:46.056
그걸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해요.

00:05:46.404 --> 00:05:49.456

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번
얘기를 해 볼게요.

00:05:49.481 --> 00:05:52.175

이야기를 좀 더 설득력 있게
얘기하기 위해서

00:05:54.838 --> 00:05:56.857

카메라 만드는 회사에서,

00:05:56.882 --> 00:05:59.208

그냥 이름을 얘기하자면
올림푸스인데요.

00:05:59.233 --> 00:06:03.033

여기에서 만든 재미있는
홍보 동영상이 있어요.

00:06:03.058 --> 00:06:09.397

뭐냐 하면 1만 장의 사진을 가지고
하나의 동영상을 만들었어요.

00:06:09.422 --> 00:06:12.115

그러니까 사진을 1만 장 이상
찍은 거예요.

00:06:12.140 --> 00:06:14.310

그래서 이 사진들을
어떻게 했냐 하면

00:06:15.355 --> 00:06:21.791

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
어떤 사진을 다 찍어서

00:06:21.816 --> 00:06:23.179

이걸 1장씩 보여주는 거예요.

00:06:23.204 --> 00:06:29.350

그러니까 마치 블록이 이렇게
쭝 서 있다가 쓰러지듯이

00:06:29.375 --> 00:06:32.626

그 사진들이 쭉 펼쳐져요,
1만 장의 사진들이.

00:06:32.651 --> 00:06:37.341

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모습부터
좀 커 갈 때부터 여행 갔던 모습들,

00:06:37.366 --> 00:06:39.784

내가 책 읽을 때 모습들,
밥 먹는 모습들.

00:06:39.809 --> 00:06:44.131

이런 1만 가지의 순간들을
찍은 사진으로 해서

00:06:44.156 --> 00:06:49.580

한 사람의 라이프 스토리를 만든

재미있는 동영상이 있어요.

00:06:50.416 --> 00:06:57.591
아마 생일을 맞이해서 그런 형식으로
자기 삶을 되돌아보는

00:06:57.616 --> 00:07:00.275
그런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.

00:07:00.300 --> 00:07:02.291
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?

00:07:02.490 --> 00:07:05.664
여러분의 삶은 1만 장 이상의 컷.

00:07:05.689 --> 00:07:07.078
1만 장만 되겠습니까?

00:07:07.103 --> 00:07:15.503
수백만 장의 어떠한 컷들,
그런 사진들로 해서

00:07:15.528 --> 00:07:17.619
현재의 여러분이 형성돼 있는 거죠.

00:07:17.644 --> 00:07:24.241
그런데 우리는 그 사건들을 대부분
기억을 좀 못 하는 측면이 있어요.

00:07:24.841 --> 00:07:27.199
그런데 기억은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.

00:07:27.224 --> 00:07:31.433
그런데 이 기억을 하기 위한
가장 재미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

00:07:31.458 --> 00:07:33.936
사진일 수 있어요, 지금 얘기한 대로.

00:07:33.961 --> 00:07:37.204
그래서 여러분이 내 기억을
되살리기 위해서는

00:07:37.229 --> 00:07:40.478
여러분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
한번 찾아보면

00:07:40.503 --> 00:07:42.740
내가 생각지 못했던,
내가 잊어버렸던

00:07:42.765 --> 00:07:44.945
그런 기억들에 대해서
기억할 수 있어요.

00:07:44.970 --> 00:07:51.304
내가 어렸을 때 남자인데도 불구하고
여자처럼 예쁜 드레스를 입고 찍은

00:07:51.329 --> 00:07:53.199
그런 사진도 있을 거고요.

00:07:53.224 --> 00:07:57.306

어느 공원에 나가서
다른 아이하고 뒹구는.

00:07:57.331 --> 00:08:00.972

다봤다든가 이렇게 해서 뒹구는
그런 사진도 있을 것 같고요.

00:08:00.997 --> 00:08:06.500

또 물놀이 가서 수영복만 입은
사진도 있을 거고요.

00:08:06.525 --> 00:08:10.620

그리고 옛날의 우리 사진들 보면
굉장히 신기한 느낌이 들잖아요.

00:08:10.645 --> 00:08:14.818

그러니까 그 사진을 통해서
내 옛날 기억을 떠올리는 것들이

00:08:14.843 --> 00:08:19.687

굉장히 중요한 글쓰기의
모티브가 될 수 있겠죠.

00:08:19.712 --> 00:08:24.186

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
여러분이 기억에 남았던 일을

00:08:24.211 --> 00:08:27.881

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고 묘사하듯이

00:08:27.906 --> 00:08:31.597

그 일이 있었던 상황을
쭉 한번 써보는 행위.

00:08:31.622 --> 00:08:35.171

이것도 글쓰기에 굉장히 좋으니까
여러분의 소중한 기억들,

00:08:35.196 --> 00:08:40.114

사진으로 찍었던 그런 기억들을
그런 식으로 해서 살펴보세요.

00:08:40.139 --> 00:08:48.534

중요한 점은 대단한 추억이 아니래도
추억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

00:08:48.559 --> 00:08:52.475

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
대단하지 않다고 보는 데서

00:08:52.500 --> 00:08:57.437

나중에 더 여러분을 만드는 데
기여한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.

00:08:57.462 --> 00:09:00.555

그러니까 그 사진들을 쭉 보면서
사진을 보고 글쓰기,

00:09:00.580 --> 00:09:02.333

이것도 에세이 쓰기에서
굉장히 중요한

00:09:02.358 --> 00:09:04.129
하나의 방법이고요.

00:09:04.777 --> 00:09:10.305
또 지금 얘기했지만 대단한 일에 대한
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하는데.

00:09:10.330 --> 00:09:12.487
어떤 게 인상적이고
어떤 게 대단한 일이나?

00:09:12.512 --> 00:09:14.273
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,

00:09:14.298 --> 00:09:18.678
우리나라 사람들은
서로 비교하기를 좋아하고

00:09:18.703 --> 00:09:22.844
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
경향이 있어요.

00:09:22.869 --> 00:09:26.078
그래서 내가 갖지 못한 거에 대해서
많이 부러워하고

00:09:26.103 --> 00:09:29.345
또 나보다 잘난 사람에 대해서
괜히 좌절감을 갖기도 해요.

00:09:29.370 --> 00:09:31.555
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

00:09:31.580 --> 00:09:35.741
여러분의 과거 경험은 정말
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없어요.

00:09:35.766 --> 00:09:37.073
잘나고 못나고 이런 게 없어요.

00:09:37.098 --> 00:09:39.067
전부 다 소중한 경험입니다.

00:09:45.393 --> 00:09:51.140
그런 예를 하나 들자면
어떤 친구가 외국에서 살다 오고

00:09:51.165 --> 00:09:52.125
외국어를 잘한다.

00:09:52.150 --> 00:09:54.875
이럴 때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

00:09:54.900 --> 00:09:57.256
외국어를 막 쓰면
부러워할 수도 있잖아요.

00:09:57.281 --> 00:09:59.769

그런데 그 친구하고
이런 얘기를 하다가

00:09:59.794 --> 00:10:02.973

나는 시골에서 자랐는데
예를 들면 겨울에.

00:10:03.421 --> 00:10:09.174

요새는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
눈 오는 날에는 이런 큰 고개,

00:10:09.199 --> 00:10:14.851

산등성 이런 데서 비닐 같은 걸
가지고 가서 막 타고 내려왔던

00:10:14.876 --> 00:10:16.279

그런 기억이 있어요.

00:10:16.304 --> 00:10:19.811

이런 얘기 막 하면 그 친구가
오히려 소외돼요.

00:10:20.080 --> 00:10:24.831

그러니까 그 추억이 더 소중하고
어떻게 보면 잘난,

00:10:24.856 --> 00:10:27.152

정말 좋은 그런 추억거리가 돼요.

00:10:27.177 --> 00:10:30.205

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
추억에 대해 접근할 때도

00:10:30.230 --> 00:10:32.896

그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,
이렇게 하지 마시고요.

00:10:32.921 --> 00:10:34.853

여러분의 추억은 너무나
소중한 것이다.

00:10:34.878 --> 00:10:38.678

이렇게 생각하고 그 추억에 대해서
글을 쓸 수 있으면 좋겠고요.

00:10:39.020 --> 00:10:43.990

또 에세이 쓰기에는 우리가 겪은
일들이 학창시절에는

00:10:44.015 --> 00:10:46.347

학교 다니는 거,
그다음에 가정 생활

00:10:46.372 --> 00:10:49.052

혹은 여행 가거나
또 친구들 이야기.

00:10:49.077 --> 00:10:50.622

이런 거밖에 없잖아요.

00:10:50.647 --> 00:10:52.204

많지 않아요, 사건이.

00:10:52.229 --> 00:10:55.322

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이야기,

00:10:55.347 --> 00:10:59.888

그다음에 내 가정 환경에 대한
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글쓰기의

00:10:59.913 --> 00:11:01.336

하나의 소재가 될 수 있어요.

00:11:01.361 --> 00:11:04.789

그래서 이 에세이 쓰기에 대해서
또 하나의 방법은

00:11:04.814 --> 00:11:06.617

엄마나 아버지에 대해서
한번 써보는 거예요.

00:11:06.642 --> 00:11:09.652

그래서 일단 우리 부모님의 직업.

00:11:10.120 --> 00:11:12.628

아빠가 하는 일은 무엇이고

00:11:12.653 --> 00:11:18.345

아빠가 이렇게 하는 점에서
내가 인상적이었던 그런 대목들.

00:11:18.370 --> 00:11:19.933

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

00:11:19.958 --> 00:11:21.999

집에서 책을 읽고 글 쓰는 시간이
너무 많아요.

00:11:22.024 --> 00:11:26.304

그러니까 아마 우리 아이는 아빠는
맨날 책만 읽고 글만 쓰고

00:11:26.329 --> 00:11:28.365

컴퓨터만 본다,
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.

00:11:28.390 --> 00:11:30.369

하여튼 뭔가 여러분이 돌이켜보면

00:11:30.394 --> 00:11:33.107

아버지에 대한 기억들
많이 있을 것 같아요.

00:11:33.132 --> 00:11:37.420

그런데 역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
아버지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

00:11:37.445 --> 00:11:40.942

또 직업이 예를 들면
남한테 보이기가 창피하다,

00:11:40.967 --> 00:11:42.351

이런 거 전혀 없어요.

00:11:42.376 --> 00:11:44.047

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.

00:11:44.072 --> 00:11:47.415

우리가 에세이나 또 자기소개서나
이런 데서 보는 것은

00:11:47.440 --> 00:11:52.502

한 사람의 일생이 어떻게
형성되었는지 보는 거지

00:11:52.903 --> 00:11:56.860

과거의 아버지 직업이라든가
가정 형편 이런 걸 보는 건 아니에요.

00:11:56.885 --> 00:12:01.641

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
아버지 직업에 대해 쓰고

00:12:01.666 --> 00:12:05.649

아버지 직업을 보면서 내가 느낀 점
또 나에게 있었던 일,

00:12:05.674 --> 00:12:09.474

그런 일들을 한번 써보면
좋을 것 같아요.

00:12:27.864 --> 00:12:31.071

예를 들면 아버지가
이런 분도 있었어요.

00:12:31.096 --> 00:12:38.138

아버지가 전기기사여서 어렸을 때
전봇대 위에 많이 올라가셨대요.

00:12:38.182 --> 00:12:40.778

그래서 학교 갔다 끝나서
돌아가는 길에

00:12:40.803 --> 00:12:42.881

아버지가 어디선가 나를
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

00:12:42.906 --> 00:12:45.639

이렇게 보니까 전봇대 위에서
자기를 부르고 그랬대요.

00:12:45.664 --> 00:12:50.808

이런 이야기도 얼마나
재미있는 소재가 될 수 있겠어요?

00:12:50.833 --> 00:12:53.360

전봇대 위에 올라가는 아빠가
몇 명이나 되겠어요?

00:12:53.385 --> 00:12:54.451

몇 명 없겠죠.

00:12:54.476 --> 00:12:59.588

그러니까 아버지가 전기기사고
전봇대에 올라간 이런 기억들은

00:12:59.613 --> 00:13:02.197
너무나 소중한 거예요, 그런 식으로.

00:13:02.222 --> 00:13:06.205
예를 들면 어릴 적에 엄마가
피아노 선생이어서

00:13:06.230 --> 00:13:10.030
피아노 때문에 엄마하고
다툼던 이야기.

00:13:10.055 --> 00:13:11.753
엄마가 피아노 교사니까.

00:13:11.778 --> 00:13:13.400
어떤 친구 얘기인데요.

00:13:14.153 --> 00:13:15.543
피아노를 배우라고 막 했던
모양이에요.

00:13:15.568 --> 00:13:18.025
그런데 자기는 또 유독
그 피아노가 싫었대요.

00:13:18.050 --> 00:13:21.210
그 피아노 때문에 엄마하고
이렇게 갈등이 생긴 이야기가 있어요.

00:13:21.235 --> 00:13:25.220
그런데 그 속에서 나중에
엄마가 왜 피아노를 배우게 했는지

00:13:25.245 --> 00:13:27.227
또 피아노가 결국은 나의 생애

00:13:27.252 --> 00:13:30.927
굉장히 중요한 삶을 만든
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.

00:13:30.952 --> 00:13:34.630
그러면 엄마 얘기를 하면서
피아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.

00:13:34.655 --> 00:13:37.579
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
어떤 이야기의

00:13:37.604 --> 00:13:40.203
소재가 될 수 있는 거고요.

00:13:40.228 --> 00:13:45.595
특히 중요한 것은 엄마, 아빠와의
사이에 내가 있었던 일

00:13:45.828 --> 00:13:47.500
그것이 중요하다.

00:13:47.525 --> 00:13:50.198

그리고 우리 가정 환경도
굉장히 중요하고요.

00:13:50.223 --> 00:13:55.719

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는
한 달에 한 번은 산에 가셨는데

00:13:55.744 --> 00:13:58.149

늘 우리를 데리고 갔다,
이런 것도 너무 좋고요.

00:13:58.268 --> 00:13:59.975

또 뭐랄까요?

00:14:00.146 --> 00:14:04.816

우리 엄마, 아버지는 특이해서
늘 교육에 대한 주장도 서로 달랐다.

00:14:04.841 --> 00:14:09.315

그래서 나는 늘 혼란스러웠지만
그런 과정 속에서

00:14:09.340 --> 00:14:12.509

나는 나만의 공부법을 찾았다,
이런 것도 괜찮고요.

00:14:12.902 --> 00:14:14.523

부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면

00:14:14.548 --> 00:14:19.092

여러분이 부모님을 한번
인터뷰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.

00:14:20.090 --> 00:14:23.127

우리가 어렸을 때
부모님을 잘 모르잖아요.

00:14:23.152 --> 00:14:26.808

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
있었던 일에 대해서

00:14:26.833 --> 00:14:28.100

부모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

00:14:28.125 --> 00:14:31.664

예를 들면 나에 대해서
태몽을 혹시 꿰었는지?

00:14:31.689 --> 00:14:34.573

또 내가 태어날 때 부모님의
기분이 어땠는지?

00:14:34.598 --> 00:14:38.234

또 어릴 적에 내가 제일
예뻐던 때가 언제였는지?

00:14:38.259 --> 00:14:41.877

그다음에 저를 키우시면서
힘든 일은 없었는지?

00:14:41.902 --> 00:14:45.339

이런 것들도 굉장히 재미있는
글쓰기 소재가 되지 않겠어요?

00:14:45.364 --> 00:14:50.257

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장점과
부모님이 생각하는 장점이

00:14:50.282 --> 00:14:51.021

다를 수 있어요.

00:14:51.046 --> 00:14:53.144

그런 것도 한번 물어봐도
될 것 같고요.

00:14:53.169 --> 00:14:56.607

더 나아가서 부모님이
어떻게 만났는지

00:14:56.632 --> 00:14:59.387

이런 것도 재미있는 이야기 소재가
되지 않겠어요?

00:14:59.473 --> 00:15:02.383

또 젊었을 때 꿈이 무엇이었는지?

00:15:02.408 --> 00:15:04.305

또 살면서 힘든 일 없었는지?

00:15:04.330 --> 00:15:07.132

이런 것들로 부모님을
인터뷰하는 것도

00:15:08.261 --> 00:15:12.061

부모님의 새로운 면을
내가 발견하는 거니까

00:15:12.086 --> 00:15:14.355

굉장히 좋은 소재가 되는 거고요.

00:15:14.380 --> 00:15:18.162

정리를 하자면 나에 대해서

00:15:18.187 --> 00:15:23.353

또 내가 겪은 일에 대해서 쓰는 것이
에세이 쓰기인데

00:15:23.497 --> 00:15:26.914

내가 겪은 일들이 주로
우리 가정 속에서

00:15:26.939 --> 00:15:29.324

그리고 학교에서 겪은 일들이
많잖아요.

00:15:29.349 --> 00:15:33.980

그러니까 자기 경험이 묻어나는
그런 소재를 찾을 때 우리 가족,

00:15:34.223 --> 00:15:38.846

특히 우리 부모님 또 내가

그 가정 환경 속에서 겪었던 일들,

00:15:38.871 --> 00:15:42.259

재미있는 일들, 슬펐던 일들
또 괴로운 일들

00:15:42.284 --> 00:15:45.265

이러한 것들이 전부 글쓰기
소재가 될 수 있어요.

00:15:45.290 --> 00:15:49.930

그래서 그것을 잘 갈무리해 놓으면
나중에 여러분이 자기소개서 쓸 때

00:15:49.955 --> 00:15:52.748

그 재료를 가지고
자기소개서에다 넣어서

00:15:52.773 --> 00:15:56.240

나는 이런 거로 인해서
이런 사람이 되었습니까라고

00:15:56.265 --> 00:15:57.589

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.

00:15:57.614 --> 00:16:04.670

예를 들면 아버지가 전봇대 위에
올라가서 나를 지켜보면서 반겼다.

00:16:04.695 --> 00:16:08.325

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모습을
기억할 때 전봇대 위에 있는

00:16:08.350 --> 00:16:10.518

어떠한 모습으로 기억한다.

00:16:10.543 --> 00:16:14.082

이런 경우는 얼마나 있겠어요?
거의 없잖아요.

00:16:14.107 --> 00:16:17.609

그러니까 이러한 독특한 경험들을
나만이 가지고 있는

00:16:17.634 --> 00:16:20.131

나의 가정 환경에서 일어났던 일들.

00:16:20.156 --> 00:16:26.135

이런 이야기를 잘 갈무리를 해 두면
그게 에세이 쓰기에 해당되는데

00:16:26.160 --> 00:16:31.138

이 에세이 쓰기의 재료들이
나중에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

00:16:31.163 --> 00:16:33.767

아주 중요한 재료로
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.

00:16:33.792 --> 00:16:36.299

왜냐하면 자기소개서는

자기를 소개하는 건데

00:16:36.324 --> 00:16:38.963
자기는 그러한 경험이 만들었잖아요.

00:16:38.988 --> 00:16:42.455
그러니까 그런 경험으로 해서
나는 그런 아버지를 통해서

00:16:42.480 --> 00:16:44.947
열심히 살아야겠다,
그런 생각을 하고

00:16:44.972 --> 00:16:47.724
열심히 노력해서 현재 오늘날
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

00:16:47.749 --> 00:16:49.351
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.

00:16:49.376 --> 00:16:51.519
그래서 에세이 쓰기는
나중을 대비해서도

00:16:51.544 --> 00:16:54.354
여러분이 반드시 많이 써봐야 할
그런 글쓰기의

00:16:54.379 --> 00:16:56.388
하나의 부분이라고
할 수도 있습니다.

00:16:56.413 --> 00:16:59.571
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.